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7)

생산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생활을 바꾼다, 모자란협동조합

2014.03.20 | 이수연_ 새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

"공방이랑 창고가 지역에 도서관처럼 있어야 해요. 버려지는 것들을 모아놓고 다시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면, 소비를 하지 못해 박탈감을 느끼거나 소비하기 위해 다시 일해야 하는 삶에 균열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공존공생' 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며,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MCCC)이 제작하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수연 연구원과 한겨레 신문의 박기용 기자가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보고서 – 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 은 팟캐스트 '공존공생' 에 출연한 초대손님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쓴 글입니다.

"메트로폴리탄 한 가운데 촌락공동체를 만들자는 거냐는 비판이 있던데, 그게 뭐 어떤가요? 지금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친구가 있어요. 남들의 비교를 거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두고 비판하는 게 이상하죠. 누구의 질서와 기준으로 만들어진 곳에 내가 서있는지를 철저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삶의 방식에 의문을 던지는 협동조합

모자란협동조합을 소개하기 위해 나온 문화로놀이짱의 안연정 대표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인터뷰 내내 그러했다. 그녀는 삶의 방식, 영혼의 치유, 땀의 가치, 창조로서의 생산, 손끝의 감각이 주는 몰입과 쾌감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협동조합을

하는 분들을 만나다보면 현재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분들이 있는데, 안 대표도 그러했다.

모자란협동조합은 수공예 생산자들이 모인 조합이다. 조합원들은 개인이 아니라 그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다. 공정무역을 하는 단체, 수공예 및 소량 생산을 하는 단체, 농사를 짓는 단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생산을 하는 단체들이 모여 있다. 현재 조합원으로 가입된 단체는 10개이며, 출자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모아 2013년 9월 창립총회를 하였다.

공정무역, 재활용 가구, 농업 등 수공예생산자 단체 10여 곳이 조합원

안 대표가 속해 있는 '문화로놀이짱' 도 모자란협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문화로놀이짱은 목재를 재활용해서 가구를 만드는 사회적기업이다. 서울 시내에서 버려졌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목재들을 보관해 두었다가, 주문받은 가구를 만들거나 소량생산 제품을 만든다. 1년에 서울에서 버려지는 가구들만 해도 16만 톤에 달한다고 한다. 핸드메이드 가구 시장이나 DIY 가구 시장 등, 기존의 대량생산 시장에 대해 대안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새 나무를 베어서 멀리서 운반해온다는 점은 다를 바가 없다. 재활용 목재 가구 시장은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문화로놀이짱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이다.

문화로놀이짱 외에도 꼬마농부, 어스맨,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터치포굿, 쌈지농부, 에코팜므, 품애 등이 모자란협동조합의 조합원이다. 꼬마농부는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해서 버섯을 키운다. 버섯을 판매하기도 하고, 커피 찌꺼기로 버섯을 키우는 상자를 판매하기도 한다. 어스맨은 라오스의 생산자조합의 물건을 국내에 들여오는 공정무역 회사이다. 주로 라오스의 여성들이 생산한 직물 상품을 들여오며, 생산자들이 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터치포굿은 버려지는 현수막이나 페트병을 이용하여 가방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만든다.

손노동, 기계를 통한 대량생산이 아닌 노동

참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저마다의 개성이 매우 독특하다. 대체 이런 단체들이 함께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 안 대표는 손노동과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모자란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바라고 설명한다. 사실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손을 쓰지 않는 일은 거의 없는데, 굳이 '손노동' 이라

고 강조하는 이유는 기계로 만들어내는 대량생산시스템을 거부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저희는 대박을 바라지 않아요. 그저 만든 물건을 팔아서 소소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커피는 앞집에서 마시고, 밥은 뒷집에서 먹고, 동네 안에서 늘 장보기가 가능한 그런 삶을 생각해요. 몇 십 년 동안 그 동네에서 살아온 세탁소 사장님과 관계가 생기고 서로에게 새로운 일거리가 생긴다면, 그게 바로 사회적경제가 아닌가 싶어요.”

안연정 대표는 그러한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어야 하고, 단순히 유통망이나 판로의 확보 차원에서 연결되어서는 안 되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대안적이고 건강한 삶과 생각을 만들어간다는 공통의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이런 생산자들이 지지 받으려면 소비자들과 만나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더군요. 더 저렴하고 더 효율적인 제품만 찾는 도시 생활자들 속에서 느리고 몸으로 만들어내는 제품이 살아남으려면,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생산자들의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소비자들이 좋은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감각들이나 방식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지를 연구하고 공유하려고 노력해요.”

유통과 내부학습이 중요 활동

그래서 모자란협동조합이 현재 하는 활동의 키워드는 ‘유통과 내부학습’ 이라고 한다. 생산자 협동조합인 만큼 생산한 물건이 잘 팔리도록 유통에 있어서 힘을 모으는 것, 그리고 대안적 생산과 삶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내부학습을 지속하는 것이 큰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통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덕역 근처 늘장과 연남동의 동진시장에서 작은 매장들을 운영하고 있다. 늘장은 경의선 폐선 부지에 만들어진 사회적경제 상설 시장이다. 모자란협동조합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들어서있다. 동진시장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문 닫은 가게들이 몇 년 째 방치된 재래시장이다. 모자란협동조합은 시장 안의 문 닫은 가게들을 임대하여 일종의 생산기지로 만들었다. 시장에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수공예 생산자들과 생산과정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오가며 구경하던 사람들이 같이 만들기도 하고, 만드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소비하기도 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최근 조금씩 소문이 나면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요즘에는 이러다가 임대료가 상승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고.

내부학습의 경우, 특별한 학습 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10개의 조직이 공동의 의제를 공유하고 의식 수준을 맞춰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학습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모자란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개인이 아닌 단체들로 이뤄져있기 때문이다. 각 단체마다 하고 있는 일이 있고, 대부분이 작은 단체인데 그럴수록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은 많기 마련이다. 또 단체의 규모와 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결합하는 정도도 다르고, 단체 대표만이 아니라 그 단체의 모든 구성원들과 합의도 해야 하는데, 거기에 걸리는 시간도 단체마다 다 다르기 마련이다. 결국은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안 대표는 그런 과정이 일반 조직보다 두세 배는 더 걸리는 것 같다며, 그래서 지금 모자란협동조합은 느슨한 연대보다는 진화했지만 그렇다고 명확하게 하나의 이름 아래 묶인 것도 아닌 중간단계, 길드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했다.

협동조합, 신뢰에 대해 다시 깨닫게 하다

이렇게 다양한 조직들이 다시 하나의 조직으로 모여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안 대표는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고 했다. “제가 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예전에는 신뢰라는 말을 온 몸으로 모든 감각이 신뢰할 때만 썼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조합을 하면서 배운 신뢰는 가장 긍정적인 상태로 예측하고 믿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 생각과 상대의 생각을 조율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 간의 다름이나 속도의 차이 등을 조금은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쌈지농부의 경우 이미 좋은 물건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물건을 소개하는 유통의 창고가 필요한데, 자기 요구만 내세우지 않고 다른 조직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끝까지 들어주고 힘을 실어주었거든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하나의 조합으로 존재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들고, 소비하고, 교환하면서 대량생산체제에서 벗어나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삶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먹고 살 만큼의 수익은 벌 수 있는 것일까? 만드는 행위만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일까? 안 대표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우선 수익에 대해 안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수입은 아직 문제가 아닙니다. 모자란협동조합에 있는 생산자들은 수입에 대한 기준, 2천 만 원을 받아야 한다거나 3천 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이 없어요. 대신 만드는 것에 대한 기술을 알기 때문에 즐겁고, 나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수입을 늘리기 보다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더 큰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게 일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접점을 찾는 게 문제입니다."

노동은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이 되어야

안대표와 그 외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의 핵심은 직접 생산한다는 것이 주는 의미, 착취가 아니라 창조의 과정으로서 노동이 주는 기쁨에 대한 것이었다. 안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손작업을 하다 보면 감각이 깨어나고 일상에서의 작은 것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지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감각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고 말입니다. 자기가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되면 주변의 시선이나 구조에 쫄지 않게 되고, 돈 때문에 주눅이 드는 일도 사라집니다. 공방이랑 창고가 지역에 도서관처럼 있어야 해요. 너무 많은 게 만들어지고 폐기되는 시대니까, 버려지는 것들을 모아놓고 다시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면, 소비를 하지 못해 박탈감을 느끼거나 소비하기 위해 다시 일해야 하는 삶에 균열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최근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생산자 조합이 늘어나는 현상이, 사회적경제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안 대표는 말했다. "지금은 노동시장 자체가 변화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도 직감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죠. '아, 앞으로는 노동시장이 열리지 않겠구나, 이곳에서 나는 늘 상처받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고용은 불안정하고, 수명은 길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게 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들기, 생산은 취미의 수준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선택되지 않을까요? 청년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서 생산자가 되고 있고, 앞으로 그런 현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은 착취의 대상만이 아니에요. 노동은 창조의 과정입니다."

화폐와 시장으로부터의 대안 모색, 협동조합이 좋은 틀 될 것

앞으로도 모자란협동조합의 계획을 묻자, 안 대표는 좋은 물건을 만들 것이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상황에 대해서 늘 고민하며 예민하게 반응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모자란협동조합 이름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모자란협동조합은 '모자라다' 의 뜻과 함께 '더 자라다(more 자란)' 의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가치나 품질 면에서는 더 좋지만, 가격이나 생산방식에서 누군가에게는 조악하고 모자란 존재일 테니까요."

손노동,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저 촌스럽고 지나치게 이상적이기만 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거기 담겨 있는 의미들은 매우 컸다. 손노동은 창조하는 존재,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의 인간과 삶에 대해 다시 인식하게 한다. 화폐와 시장에 얽매여서 소비만 하던 초라한 인간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직접 만들어 냄으로써 소외에서 벗어나는 당당한 인간으로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적 시선과 삶의 방식이 협동조합이라는 틀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로부터 지지 받고 튼튼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